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많은 논란거리가 돼 왔다. 많은 시민·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근래에는 불교, 천주교, 일부 개신교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4대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대는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

4대강사업 목적의 허구성

대강 분류에서는 거의 홍수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홍수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면 지방하천(지류)나 소하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대강사업 목적 중에서 가뭄해결을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홍수와 관련지어 논의할 수 있다. 가뭄은 4대강 분류 인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뭄피해 지역을 보면 산지, 도서(섬)지역, 연안(해안가)지역이 대부분이다. 가뭄이 극심할 경우라도 우리나라 대도시(대도시)는 4대강 분류 인근에 있음에서는 용수공급에 지장 없게 돼 있고, 문제가 되는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빈약한 몇몇 중·소도시(4대강 분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뿐이다. 따라서 가뭄해결을 위해서는 산지지역이나

용수공급체계가 빈약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수자원 확보계획을 추진하면 된다.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4대강에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두는 저수지를 만들게 되므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은 강이 아닌 호수가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무시하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강변하고 있다. 대규모 하상굴착(준설)로 모래·자갈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4대강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토목건설업은 대부분 중장비가 하고 인력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으로 35만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현재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보더라도 공 구당 몇 백 명의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4대강사업이 정부에서 주장한 대로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수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내세워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유역치수사업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의 하천사업 관리체계를 무시했고,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졸속으로 수행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서를 면제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 하상굴착이나 보 건설사업은 예외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많은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윤하에 대한 본인의 소신은 변함이 없지 않다" "국민이 반대하면 윤하사업을 하지 않겠다." "내 임기 중에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4대강살리기사업을 윤하로 연결하는 사업은 차기정권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 등의 내용을 다시 음미해 보고 4대강사업을 유추해 보면, 이 사업이 윤하사업의 전 단계 사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설

봉은사 토론회와 개혁의 기회

조계종총무원과 봉은사, 불교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새 전기를 맞았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기로 한 지난 3월 초부터 한 달 넘도록 폭로와 반박으로 이어졌던 격한 상황이 차분해진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30일로 예정된 토론회에서 총무원, 봉은사, 불교단체 3자는 각각의 입장을 털어놓을 것이다. 총무원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이고, 봉은사는 부당성을 지적할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명쾌하게 지적하면서도 종도들이 크게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총무원과 봉은사가 주장한 내용들의 간격이 적지 않아 '봉은사 직영' 사회적 관심이 되었다. 따라서 조계종단 고질적인 문제점 드러났다. 회로 합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3자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라는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3차 토론회로 이어져 반드시 화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동안의 논란의 과정에서 조계종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자주성 문제이다. 총무원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

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며,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

장에게 했다는 점에서 상식 이하다.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또 청정승가대중결사에서 지적했듯, 문화재 유지 보수 등 불교와 관련된 정부예산 편성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자 첫 중심 쓰듯 책정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불교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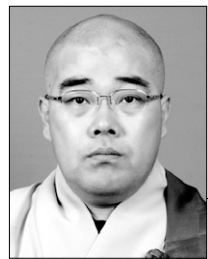
두 번째는 총무원장 선거 후 뒤따르는 중앙종무기관 부실성 및 직영·직할 사찰로 지정한 당위성을 강조할 것 기"라는 맞말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계파 안배도 인사의 한 원칙이 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적대적소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폐해가 너무 크다. 당선자 측은 종권을 획득했다고 하겠지만, 종도들은 위임했을 뿐이다.

셋째는 종책 결정과정의 철저 합법성과 회로 합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3자가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 라는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차, 3차 토론회로 이어져 반드시 화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동안의 논란의 과정에서 조계종의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 번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자주성 문제이다. 총무원에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의란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한 것이 아니므로 자주성 훼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며, 특히 조계종을 대표하는 총무원

장에게 했다는 점에서 상식 이하다. 없었던 일로 넘어갈 수는 없다. 또 청정승가대중결사에서 지적했듯, 문화재 유지 보수 등 불교와 관련된 정부예산 편성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자 첫 중심 쓰듯 책정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불교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나타난 예수의 초상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다빈치는 프로펜스의 거지들 모델로 삼아 예수의 초상을 그렸다고 한다. 반면 법당 안의 부처님은 현실과 너무나 거리를 느끼게 하는 존상을 취하고 있다. 탕화 앞에 모셔진 부처님은 더욱 의외인 같은 분위기이다. 우리가 절에서 예배할 때 보는 불상이나 탕화는 인간미가 없는 것 같다. 부처님은 "일체 존재는 나와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거룩한 부처님을 조성해 놓으니 우리들은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너무나 신격이여야 할 예수는 인간적으로, 보다 인간적인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사부대중 갈림

무관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부산 안국불교대학장

부처님과 에어리언

석가모니 부처님의 카스트가 크샤트리아라서 우협(右掾)으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후대의 제자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초과일이 지나고 그 주 일요일 어린이 법회에 그 초등학생이 와서 또 질문을 했다. "스님, 처음 태어난 아이가 걸음도 걷고, 말도 합니까?" 그날 그 학생을 방으로 불러서 장장 2-3시간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학생을 보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우리가 너무 에어리언적인 불교를 가르치고 있지 않나?"

2600여 년 전, 히말라야산 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에서 탄생하신 부처님은 45년간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 경험 가능한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진리를 설파하셨다. 영혼, 신, 우주의 끝과 시작 등의 형이상학(形而上學)적 물음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침묵했다.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글이 <마하파리나바경>에 잘 나타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모습이 더 신앙적이고 존경스럽다.

"아난야, 나는 이제 늙고 지쳤다. 인생의 가나긴 길을 걸여와 어느 새 노령에 이르렀다. 여든이 되니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수레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는 것과 같구나... 이 세상에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자기 자신과 부처님이 남겨놓은 법 밖에 없다는 말씀은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이러한 솔직한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더 인간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은가? 우리의 외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신)가 있다고 허망하게 말 하는 것 보다 더 종교적인 것이다.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많은 종교도 존재할 것이다. 종교들은 절대자에게 기도할 것을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실체(절대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설(說)했다. <경강경>에서 부처님은 당신의 말씀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분인가! 잘못된 망념을 깨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에어리언적인 불교에서 좀 탈피해 인간종교로써 거듭나길 바란다. 부처님 오신날에는 산과 들에 피어나는 새싹들처럼 불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한다. 늘 구태의연(舊態依然)한 방법으로 포교와 신행을 가르치지 말고, 좀 더 세련되게 정말 부처님 법에 맞는 가르침을 흥표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자.

새로운 滴天髓 풀이

[제1권 · 제2권] 완간

21세기 新개념의 역학!

직전수천미와 직전수징의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그 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한글세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매끄럽게 번역했다. 그리고 풍부한 해설을 곁들였을 뿐 아니라 천미와 정의를 예시된 수많은 명조마다 사주의 구조와 운의 좋고 나쁨을 일일이 명쾌하게 해석해 놓음으로써, 누구든지 독학(獨學)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천미나 정의에 나오지 않는 자평 명리학의 이론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폭넓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이제 당신도 점술가가 될 수 있다!

◆ 한국별점 자미두수가 당신의 운세를 ...

이 학문은 고대 중국의 진화라는 사람이 기도 중 천기를 받아 창안한 성리학이다. 특히 천지조화를 터득하고 인간의 부귀빈하고 길흉화복을 예지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정확성이 뛰어나며 귀신도 울고간다하여 금기된 적도 있다. 인연있는 후학자들에게 의해 꾸준히 연구 지금의 자미두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좋은 운명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高山 양정용 지음/4×6배판/양장본/45,000원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 천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공명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野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제1권 蔡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56쪽 / 정가 40,000원

제2권 蔡源 羅明祺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728쪽 / 정가 40,000원

육임이 보인다

태초 지음 / 4×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성제 지음/15,000원 신국판/송학 스님 지음/양장본/30,000원

육묘학 핵심비결

徐野 煥 지음/4×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건

김백만 편지/신국판/양장본/50,000원 4×6배판/이선임,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野 煥 지음/4×6배판/양장본 1 권 880쪽 2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제품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타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골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걸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약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화를 내며 치아를 씹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답니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를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룰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뎀을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뎀을 못하고 등산에도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오기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타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곽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타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